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등을 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국 불교 자체가 기복으로 전락된 지도 무척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동시에 움죽거려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해야 하는 이 지금 현시대를 똑똑히 보시면서 행하십시오. 기복으로 전락이 된 것뿐만 아니라 너무 구태의연하게 변함도 없고 발전도 없고, 차라리 예전 삼천 년 전에 하던 그 식으로만 해도 좋을 텐데, 이조 말엽 때에 그 탄압에 못 이겨서 모두 방편상 세워 놓고 가져오는 것들을 가지고 공부들을 하면서 이런 첨단의 시대에도 그대로 지금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참답게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진화돼서 창조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재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탈권을 가지고 있고 부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100%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릴까 봐 지금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부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왜 하나냐고요? 부처님이 찰나에 나투시면서 응해 주시는 그 응신이 바로 풀 한 포기에도 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보시를 달라고 한다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도 자동적으로 응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만 분이 성불을 했고 열반계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도 어느 몸이 내 몸이 아닌 게 없이 나투시고, 어느 마음도 내 마음 아닌 게 없이 나투시고, 어느 자리도 내 자리 아닌 게 없이 나투시고, 어느 모습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느니라 하신 까닭에, 부처님이라는 그 이름은 어느 것이 될 때에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아버지다 어머니다 하고 이렇게 이름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부처님의 마음은 아촉도 되고 아미타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칠성도 되고 산신도 되고 용신도 되고 약사도 되고 지신도 되고 신중도 되고, 모든 게, 아니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 전력 하나로 여러 용도를 다 쓰듯이….



그림 · 최주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한 분을 모셔 놓은 것도 우리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 해 놓은 방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방편으로 모셔 놓은 그 자체를 알고 보면 그게 실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요, 내 형상이요 바로 내 마음이요 내 생명이요 둘이 아닌 까닭에 그대롭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모습으로 움죽거리지마는, 우리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조성이 된 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나고 든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 공부하는 데는 한 분만 모셔 놔도 족하다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한데 모아서 헛갈리지 않고 잘 공부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방생입니다. 방생은 예전에 물이 오르고 다시 내려올 때에 고기들 또는 지렁이, 미꾸라지 또는 남생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그냥 산에 떨어지거나 길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예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님네들이 물 바깥에 흩어진 그 생명들을 위해서 이만한 그릇에다 물을 담아 가지고 거기다 주워 담아서 물에다 넣어 줬다 이겁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이렇게 방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발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마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생이라는 거는 물 바깥에 난 것만 방생이 아닙니다. 물을 잃고 바깥에 나선 것을 바로 물에 넣어 주는 것이 방생이요,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방을 얻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은 것도 도와주면 방생이요, 먹지 못해서 굶어서 비실비실하는 것도 도와주면 방생이요, 취직을 못 하고 식구가 다 굶을 정도로 됐을 때에 취직을 시켜 주는 것도 방생이요, 어려울 때에 무주상 보시로써 도와주는 것도 방생입니다. 또는 부모가 없이 자라는 애들 한테 보시를 하는 것도 방생이요, 어느 거 하나 방생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노는 고기들을 잡아다가 잡는 데 죽이고, 잡아다 놓는 데 죽이고, 또 방생해서 물에 갖다 넣는 데 죽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마는 8·15 해방 되기 전의 얘깁니다. 탄광으로 붙들려 가고, 모두 징용으로 붙들려 가고, 정신대로 붙들려 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갔습니다. 붙들려 가서 8·15 해방이 되니까 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네 집들을 찾으러 산지사방으로 흐트러져서 그냥 그 차 꼭대기에도 타고 오고, 위도 타고 또 어디 타지 못하고 걸어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수히 죽어갔습니다.

그와 같이 고기도 자기 놀던 집이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대로 진흙물이 자기 집이요 또는 어떠한 고기라도 물에 넣어 주면 몇십 리라도 자기 놀던 데로 갑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집 찾아가듯. 그러다가 중간쯤 가서 죽고 중간도 못 가서 죽고 이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거 놀부 짓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생은 그래서 지금 고기들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생은 폐지해야 됩니다.

셋째 천도재, 제사 이런 걸 말하겠습니다. 천도라는 것은, 우리가 육의 부모의 조상이나, 법의 부모의 조상이나 조상은 크고 작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으냐. 자식이 물에 빠지면 부모는 자기가 물에 빠져 죽더라도 그 자식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지 않는 마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죠? 그건 부정 못 하죠?

그런데 한 가정에서만이 그런 것이고, 이 법의 부모는 전체의 부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작든 크든 그 아리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조건 없는 마음, 이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상은 다 한자립니다. 여러분이 '한자리가 아니야.' 하면은 한자리가 아니게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아주 기구하고 운명적이고 묘한 것이고 광대한 것입니다, 이 생각 하나가. 생각 하나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냥 부도가 나게 하고, 생각 하나가 모두 망하게 하느냐, 회사를 일으키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생각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찰떡을 뚱그렇게 하나 해서 놓고 초, 향, 물 이렇게 놓고 지내는 것에 불평불만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지내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공양'이라고 하죠. '떡공양' 합니다. 떡공양 하면은 그 떡 하나로 인해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먹고도 남음이 있다 이겁니다, 되 남는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수박을 죄 먹고 그 씨를 되심어서 또 수박이 나면, 수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